

# 자연을 위한,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한 성찰

##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

레이첼 카슨의 지음, 민승남 옮김

며칠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한여름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갈수록 폭염을 비롯한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이 그만큼 훼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연과 하나되는 삶의 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과제다.

그러나 "자연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이며 환경보호 활동가 레이첼 카슨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남획을 일삼고 있다. 마치 자연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파헤치고 있다. 식량위기, 기후위기는 종래는 인간 생존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다.

최악의 환경문제에 직면한 인류세 시대에 생태학자, 조경가, 농부, 시인, 철학자 등 21명이 지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라는 책 제목이 암시하듯 인간이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레이첼 카슨을 비롯해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엘리슨 호손 데밍, 작가이자 인종평등활동가 폴린 데이비드, 진화생물학자 데이비드 해스켈 등이다.

책의 시작은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의 '자연'에서 비롯됐다. 이 작품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거릿 폴러 등 당대 사상가들과 작가들을 감화시킨 것은 물론 이후 미국 사상계와 출판계에 영향을 미쳤다.

"자연은 하나의 언어이며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사실은

모두 하나의 새로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전 속에서 해체되고 죽는 언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미로 통합되는 언어다. 나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

이번 책을 엮은 스투어트 켈스텐바움은 몬슨에술갤러리 수석고문이자 메인주 계관시인을 역임했다. 그는 서문에서 책을 엮게 된 순간을 이야기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세상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자연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그는 5월 감염병이 세계를 휩쓸던 어느 날 뒤뜰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민들레 씨앗들이 눈송이처럼 날렸는데 단풍나무 씨앗 하나가 책 위에 떨어졌다. 그때 그는 여전히 자연의 세계에서는 생존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책에는 사우스대학 생물환경학 교수이자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해스켈은 '로키산의 노장들, 브리슬론소나무를 찾아서'라는 글도 수록돼 있다. 콜로라도 브리슬론 숲에서 가장 늙은 고목은 2100살에 이른다. 저자에 따

르면 1000년을 산 나무들도 적지 않다. 이들 나무들 뿌리는 "14억 년 전 지구 표면으로 흘러나온 마그마로 인해 형성된 바위를 속으로 구불구불 뻗어" 있어 장관을 이룬다.

시인인 킴 스테퍼드는 '우리가 저마다 땅의 시를 적어 내려갈 때'에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하나로 '어휘'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풍경 속 특정한 장소들에서 어휘를 취하고 관찰과 축복의 전통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저마다의 특별한 장소의 최면에 걸려 글을 쓰고 땅으로 충만한 인식의 정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각각의 글들은 그렇게 인류세 시대의 작가들이 써 내려간 성찰의 기록으로 다가온다. 독자들은 어머니인 대지의 무한한 사랑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작가정신·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코로나와 잠수복=포스트 하루키 세대의 선두주자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아픔과 고난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지켜주는 마법과 같은 이야기 다섯 편을 수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직감하고 잠수복으로 방호복을 대신한 아빠, 아내의 외도에 상처받고 바닷가를 찾은 소설가 등 각 주인공이 처한 상황 속 복잡한 심리를 그려낸다. <북로드·1만4800원>



▲몬테소리가 말하는 몬테소리 교육=몬테소리 교육은 '육아의 정석'이라고 불린다. 시대와 동서양 구분 없이 많은 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몬테소리 교육은 무엇이며,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걸까.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담아 냈다. <유아이북스·1만6000원>



▲스파이크=세계적인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의 석학 마크 험프리스가 신경계의 본질적 요소 '스파이크'의 여행을 따라가며 그 작용을 낱알이 살펴본다. 우리가 다채로운 정신적 능력을 누리고 신체에 세심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뇌 속 뉴런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인 스파이크 덕분이다. 신경과학의 기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뉴런과 스파이크를 직접 들여다 본다. <하나무·1만9800원>

▲정의의 교실=일본 철학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 파워블로거인 야무자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철학'에 주목한다. 그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정의롭게 살기 위한 지적 무기가 바로 철학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 왔던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라는 화두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다. <마일스톤·1만6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어느 병사의 전선 일기=지양 청소년 과학·인문 시리즈 4번째 도서. 어느 겨울 날 저자인 바루가 도보 여행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노트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어느 프랑스 병사의 일기장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몇 주 동안의 사건이 기록된 일기에는 전선으로 이동해 가는 여정, 가족의 편지를 애대개 기다리는 심정이 적혔다. <지양사·1만5000원>

에 찾아온 수상한 손님과 열혈에 조상의 업보를 짊어진 후손의 엉뚱하고 유쾌한 떡갈기 한판이 벌어진다. <주니어김영사·1만2800원>

▲선달그림의 쫓겨난 밤=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틈틈이 책을 쓰고 있는 김원아의 신작. 고전 '도깨비와 범벅장수'는 범벅 장수가 도깨비를 골탕먹인 뒤 잘 먹고 잘사는 걸로 끝이 난다. 그림달

▲우리반 싸움 대장=우리반에서 가장 강한 친구는 누굴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쯤 궁금증을 갖는다. 무술을 배운 친구? 힘이 센 친구? 이 책은 세명의 어린이가 우리 반 최강자를 가리는 과정을 통해,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뜨인돌어린이·1만2500원>

# 부활의 기적을 이룬 드레스덴, 슬픈데도 명랑한 부다페스트

## 유럽도시기행 2

유시민 지음



해외여행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요즘이다. 2년 넘게 소강상태였던 관련 책 출판도 이어지고, 여행관련 프로그램들도 현지 촬영 등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유럽도시기행' 시리즈 두번째 권이 3년여 만에 출간됐다. 파리, 아네테, 로마, 이스탄불의 여정을 담은 시리즈 1권은 지난 2019년 출간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유럽도시기행' 시리즈는 평범한 한국인이 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여행했고, 그런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민 책이다. 작가는 "도시의 건축물·박물관·갈·광장·공원을 '텍스트(text)'로 간주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context)'를 전달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한다. 도시는 콘텍스트를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며, 그 말을 알아듣는 여행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럽도시기행 2'에서 다룬 4곳의 도시는 '내겐 너무 완벽한' 오스트리아 빈, '슬픈데도 명랑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심하게 지나치지만 얌다면 뭘 해도 괜찮을 듯한' 체코 프라하, '부활의 기적을 이룬' 독일 드레스덴이다.

저자가 드레스덴에 가고 싶다고 처음 생각한 날은 1995년 2월13일이었다. 독일 유학중이던 그는 아침 신문에 '드레스덴 폭격' 관련 보도를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 폭격의 표적이 독일군과 군사 시설이 아닌, 드레스덴이라는 도시 자체였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리고, 25년이 흐른 후 뉘른베르그 드레스덴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홍터'였다. 그는 왕궁, 성모교회, 초빙어, 오페라하우스인 '젠퍼오퍼' 등을 만나는 구시가를 지나고 그가 신시가지 슈퍼스타로 꼽은 알베르트 광장을 거닐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는 다른 도시에 비해 볼거리가 많지 않았는데도 드

레스덴이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에 대해 "독일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문명사의 여러 시대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열망, 그 열망이 부른 참혹한 비극, 그 참극을 딛고 이루어낸 성취를 품고 있어서 일 거"라 생각한다.

"지구 행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도시, 도심의 모든 공간이 영화 속 같았던,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차르트와 요제프 황제의 부인 시씨를 만나고, 합스부르크제국의 유일한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시아를 떠올린다.

또 완벽한 도시였다고 생각한 빈에서 만난 빈틈이었던 바그너 거처, '뚝뚝의 발견'이었던 훈데르트바서의 흔적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작가가 "격정 없이 살아가는 명랑소년"의 이미지로 묘사한 프라하와 "스스로를 믿으며 시련을 이겨내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깨끗하게 나아가는 사람 같은" 부다페스트로의 여행도 만날 수 있다.

다음 여정은 이베리아 반도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스본, 포르투다. <생각의 힘·1만7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